

<공동체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만들어 운영하는 **진짜 은행!!**
- ▶ 상호협력과 연대를 증진하는 방식의 **새로운 경제적 실천!!**
- ▶ 인간적인 경제를 위하여,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관계망으로!!**

<공동체은행>이 무엇인가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은행입니다. 안 그래도 은행이 많은데 또 은행이냐고요? 네, 은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를 위한 은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 우리가 만든 제도로, 우리를 위해 사용되는 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모아'의 생각입니다. 수익만을 쫓기 위해 존재하는 은행이 아닌, 사람의 행복과 다수의 편익을 위한 은행,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은행>입니다.

<공동체은행>은 지역 주민이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인 자조(自助) 성격의 은행으로, 주민들 간 상호부조와 연대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구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와 열망에 기초하여 자금의 쓰임새가 결정됩니다. 이로써 공동체은행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순환**시켜, 지역 주민 한 명 한 명의 **살림살이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작지만 새로운 금융 질서를 '대안 금융' 또는 '관계 금융'이라 부릅니다.

한 마디로 <공동체은행>은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풀뿌리 금융입니다.

<공동체은행>과 같은 자조금융 사례가 있나요?



네, 이미 적지 않은 자조금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포 **성미산마을의 <대동계>**, **용산 해방촌의 <빈고>** 등 몇몇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조성된 자조 성격의 풀뿌리 기금들이 있습니다. 지역 기반은 아니지만,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청년연대은행 <토닥>**, 대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키다리은행>**(한양대, 단국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역시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대안은행으로서 청년들이 십시일반 모은 협동기금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비빌 언덕을 만드는 청년 경제안전망이자 자조금융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동체은행을 마포구 단위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경제주체'의 정의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시장 상인, 마을공동체, 노동 운동, 지역 운동, 정당,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과 개인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은행 설립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힘

마포공동체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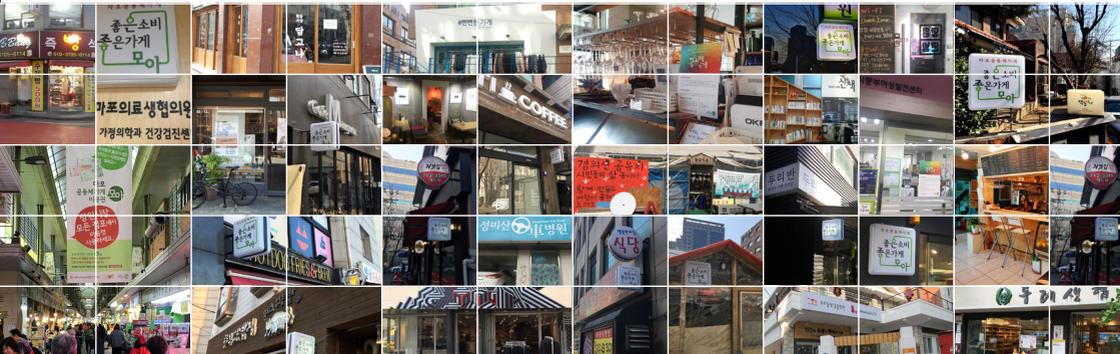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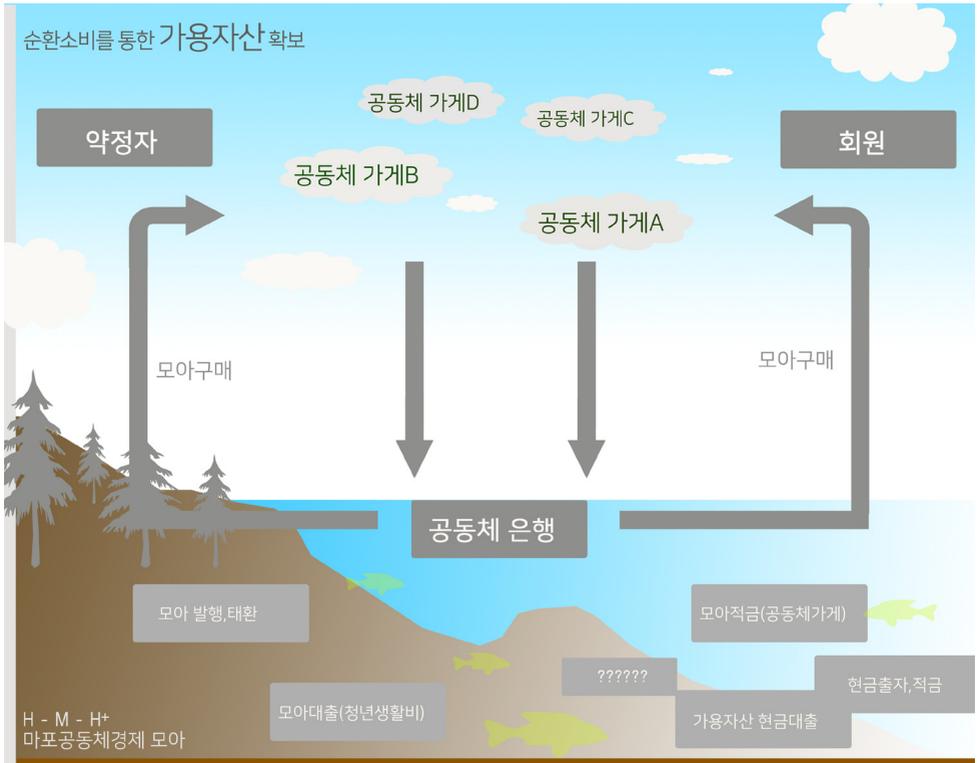
* 마포공동체은행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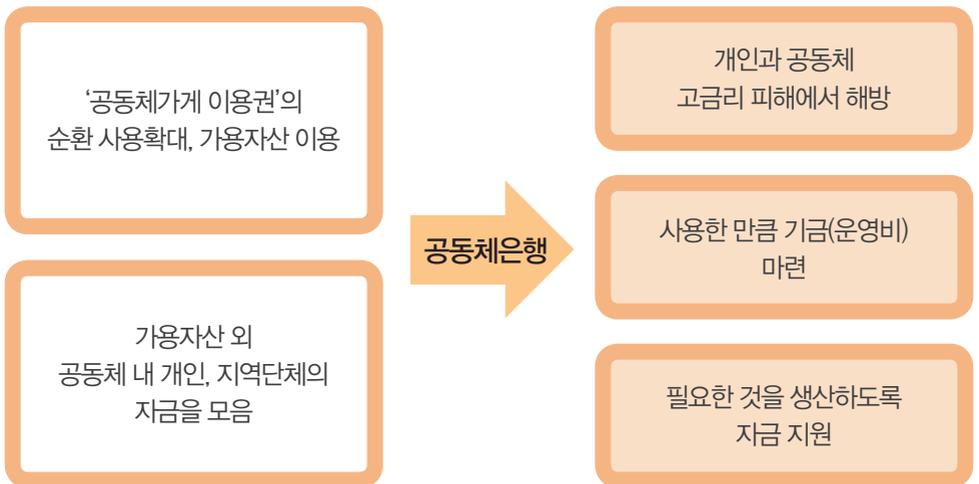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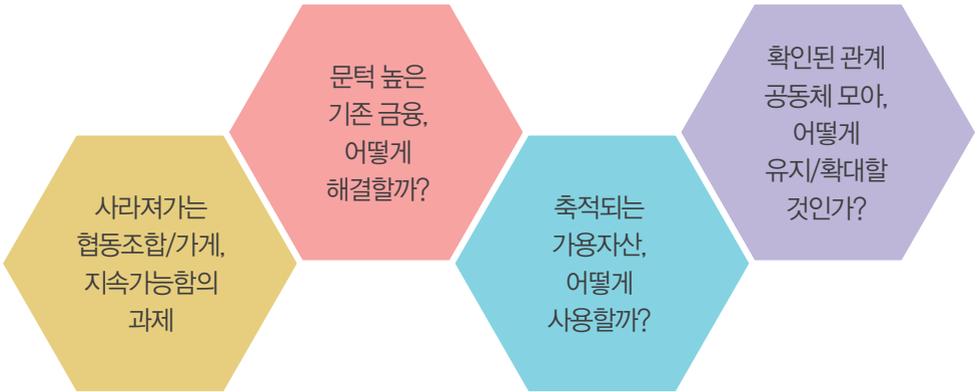
* 마포공동체은행이 돈을 모으는 방법



지역화폐 순환을 통한 가용자산 확보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의 과제와 방향



▶ 모아의 공동체은행 시범 적용 사업 협약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지지 관계로서 돈의 사용

[협약서]

우리는 서로의 실험을 지원한다.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이하 모아)의 공동체은행 실험은 우리의 돈을 우리가 정한 약속으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실험이다.

그들, 각자의 문(이하 문)의 삶을 공유하는 실험은 주거빈곤 시대에 주거와 삶을 공유함으로써 도시에서의 생존을 고민하는 실험이다.

모아와 문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돈을 공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실험을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돈을 인간의 삶에서 원래 그것이 존재해야 하는 자리로 돌려보내는 실험을 시작한다.

모아와 문은 문이 모아의 돈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함을 확인한다.

- 이용기간 : 2017년 3월 15일부터 2년간. 2019년 3월 14일까지 반환
- 이용금액 : 300만원
- 이용비용 : 이용금액의 연5%
- 반환방법 : 이용금과 이용비용을 함께 매달 원리금 균등 반환. 첫 반환날은 4월 15일로 하고, 매달 15일 반환.

제네트워크 모아, 신협, 131-018-244034

2017년 3월 15일

제공, 유네, 마봉, 핀 을 대표하여 제공 (서명)
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대표 윤성일 (서명)

◀ 희망연대노조의 공동체은행 씨앗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자산 시범 사용

단체 : 4곳, 개인 : 6명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체 자산 이용 시범사업)

서로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우리의 자산을 모아, 서로 호혜적으로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울고 빌려주는 곳이 같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는 돈의 사용.
힘을 모을 때 대안은 마련됩니다.

사용대상	모아 회원 및 공동체가계이용권 약정자 중 (신규 회원, 약정자 포함)
사용내용	긴급한 생활자금 용도
사용금액	기본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범사업 운영자산 1,000만원내에서 협의하여 사용계획을 결정합니다.)
사용조건	기본으로 연사용비용 2~5% 내에서 협의. 기본 한달 거치후 1년 이내 원리금동반환. 최종결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용신청 절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mapomore@gmail.com 으로 제출 후, 모아 의 <유용하게 쓰자> 팀과 협의 후 사용여부 및 계획을 결정합니다.
신청일	10월 15일까지

모아는 돈의 상호호혜적사용을 위하여 '대출' → '사용' '이자' → '사용비용' '상환' → '반환' '실사팀' → '유용하게 쓰자 팀', '괜찮아요 팀' 등의 단어사용을 실험합니다.

시범사업의 공동체자금은 희망연대노조조합과 (주)넬라이브가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에 지역플문리연대기금(은영) 조성사업으로 기부한 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02-3144-3315 http://mapo.network

* 마포 공동체은행은 기존 은행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출 ▶▶▶ 사용

마포 공동체은행에서는 '대출' 대신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동체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모은 돈을 어떻게 이롭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우리가 필요할 때 쓰이길 바랍니다.

이자 ▶▶▶ 사용수입

마포 공동체은행의 자원을 이용해서 자본에 빼앗기던 돈을 탈환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을 말합니다. 공동체은행에서 이용한 자원을 집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면 월세를 탈환할 수 있고 영리 대출상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자를 탈환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탈환한 돈이 곧 '사용수입'입니다.

상환 ▶▶▶ 반환

마포 공동체은행에서는 '상환' 대신 '반환'이라고 표현합니다.
필요로 우리의 주머니에서 꺼내간 돈을 그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빈 주머니에 다시 채워 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사팀 ▶▶▶ 유용하게 쓰자 팀, 추심팀 ▶▶▶ 관촬아요 팀

'심사'라는 말 대신 '유용하게 쓰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대출' 대신 '사용'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이롭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이 바로 저희 공동체은행이기 때문이죠.
'추심' 대신 '관촬아요'라고 한 까닭은 '**반환**'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